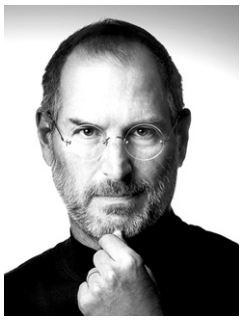


만화로 보는 잡스의 정신세계와 禪

만화 <스티브잡스의 禪>, 다국어 번역돼



애플의 前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211·사진)의 정신세계를 테마로 만화책 형식으로 발간된 <스티브 잡스의 선(The Zen of Steve Jobs)>, 2011)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로 번역돼 최근 발간됐다.

포브스 미디어(Forbes Media)에서 발간한 <스티브 잡스의 선>은 잡스의 정신적인 면에서의 성장이나 변화를 그린 코믹 형식의 책이다.

책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난 1985년 이후부터 스토리를 시작한다. 이 기간 동안 잡스는 일본 조동종 승려인 오토가와(乙川弘文) 고분치노 선승과 깊은 교류를 쌓았으며 책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다.

포브스 미디어는 "스티브 잡스와 오토가와 고분치노의 만남이 1996년 애플 복귀 후 잡스의 기업 이념에 영향을 줬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잡스는 1960년대 히피문화와 미국 선불교 열풍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성장하면서 히피문화는 물론, 선불교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20대 때 인도를 여행, 불교를 접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캘리포니아 주 선 센터에 다니면서 오토가와 선승과 교류했다.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직관적 통찰에 깊은 영향을 받은 잡스는 스스로 "직관적 이해와 자각이 추상적 사고와 지적 논리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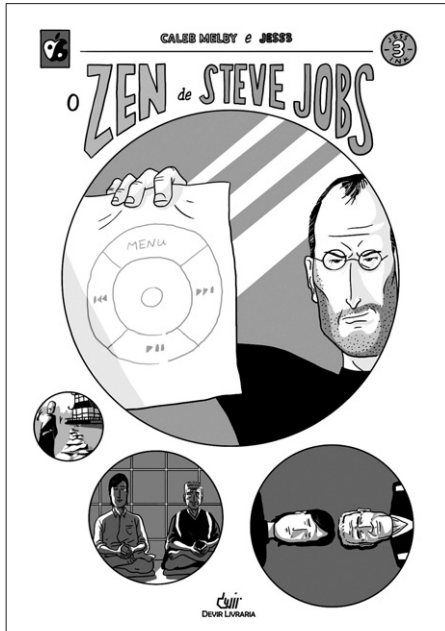
이때 자신이 있는 로스앨터스에서 '선심 초심'의 저자이자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를 운영하는 스텔라 쉐퍼 스티븐을 만나면서 선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스페인,이태리,포르투갈어 등 日 고분치노 스님과 인연 담아 독자들 "잡스의 다른 면 알게돼"

오토가와 고분치노 스님은 스텔라 스티븐의 제자로, 잡스는 고분치노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 공부하면서 보다 깊은 선적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당시 선적 체험은 긴 세월 매일 아침명상수행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직관력을 키워주는 바탕이 됐다.

오토가와 선승은 1991년 잡스의 결혼 주례도 맡았고 1986년 잡스가 애플 CEO에서 해임, 설립한 'NeXT' 종교지도자로 임명된 사이로 오랫동안 친숙했다.

잡스의 강연과 발언 중 '선의 자력본원(自力本源)' 사상이 자주 반영된 것도 그 연연이었다.



'스티브 잡스의 선'의 포르투갈어 버전인 <O Zen de Steve Jobs> 표지(좌)와 오토가와 고분치노 스님과 잡스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만화로 묘사했다.

만화 <스티브 잡스의 선>은 80페이지 분량으로 일러스트레이터인 케일럽 멜비(Caleb Melby)가 작업을 맡았다. 케일럽 멜비는 스티브 잡스의 일대기 중에서도 오토가와 고분치노 스님과 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스티브 잡스는 그의 일생동안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하고자 한 인물이다. 그는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 마약을 복용해보고 과일만 먹는 등 다양한 실험을 하기도 했으나 이내 실험을 그만뒀다. 하지만 선불교는 잡스가 오랫동안 몰두할 수 있었던 대상이었다. 고분치노 스님은 잡스의 디자인과 불교적 영감을 준 멘토였



다. 나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줬던 것은 두 인물의 세상을 향한 강한 통찰력이었다. 이들은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흥미를 갖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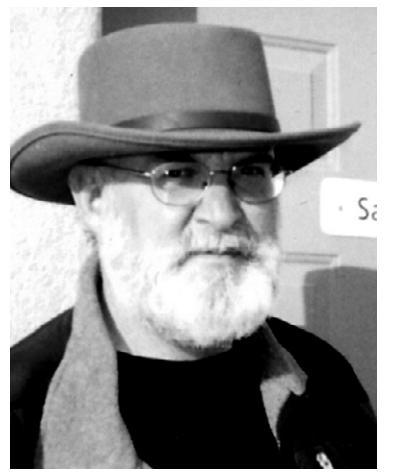
간결한 만화를 통한 스티브 잡스와 불교 이야기는 독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책을 구입한 독자들은 "천재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좋은 책이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의 삶에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스토리가 인상적이다. 불교와 스티브잡스의 스승 이야기는 통찰력을 얻게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i.com

미국의 대표적 인도불교학자

세계의 불교학자(33)

리처드 헤이즈 美 뉴멕시코 주립대 교수



리처드 헤이즈(Richard P. Hayes·67) 美 뉴멕시코 주립대 철학과 교수는 미국 내 대표적 인도불교학자로 원전에 대해 정밀하게 문헌학적 해석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5세기 이후 인도불교의 큰 흐름인 인식론과 논리학 언어학 분야를 통칭하는 '불교 브라마나 학파'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헤이즈 교수는 초기불교 아함을 비롯해 구사·중론을 아우르는 문헌번역과 해석 작업 등을 진행해 오면서 서구 철학계에 주목받았다. 실제로 그의 논문들은 초기 불교와, 구사론과 중론에 대한 것들이 적지 않다. 그의 이러한 연구 배경은 바로 산스크리트어를 중심으로 불어와 티베트어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뛰어난 원전어 실력에서 비롯됐다.

헤이즈 교수는 1972년 캐나다 칼턴대 아시아학과에서 종교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0여년간 그는 토론토 대학에서 다양한 불교 원전언어와 인도 불교학과 철학을 집중 공부하면서 토론토대 산스크리트 인도학과에서 석사(1974년), 남아시아학과에서 박사학위(1982년)를 취득했다.

그는 박사 과정 중 일본 히로시마대에서 2년 동안 방문학자로 연구했고, 헤이즈 교수는 와더(A.K. Warder)교수로부터 팔리어를 배우고, 카츠라(Shoryu Katsura)교수와 함께 고전 티베트어를 습득하고, 구사론과 중론·유식에 관한 논서들을 읽었다.

벤카타차리야(T.Venkatacharya)교수에게서 산스크리트사본 연구에 필수적인 파니니문법을 습득했으며, 마티탈(Bimal Krishna Matilal)교수 지도아래 인도학 전체의 논리학, 언어학을 체계적으로 배웠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2년간 방문학자로 연구한 결과 1988년 <Dignaga on the interpretation of signs>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헤이즈 교수는 디그나가의 언어이론을 중심으로 불교 언어학에 대해 집중 고찰했다. 디그나가 논서 중 언어에 관한 장을 현존하는 두 종류의 티베트어 판본을 참조로 비교 해석했으며, 불교뿐 아니라 인도철학 논서들에서 다양하게 인용되는 디그나가의 언어이론을 산스크리트 원전으로부터 추출해 정밀히 재구성했다.

이와 함께 불교 언어 이론이 초기불교 아함에서 출발해 어떻게 회의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는지, 왜 불교에서 언어가 기본적으로 유명론인가를 자신의 일관된 논리로 밝혀냈다.

이후 헤이즈 교수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디그나가를 계승하는 인도철학사 최고

의 논사라고 일컬어지는 다르마키프리로 옮겨간다. 그는 이 작업을 통해 불교 인식론과 붓다와의 상관성이 잘 드러나는 인식론과, 논리학 부분을 집중 번역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헤이즈 교수는 자신의 활동이 이론적 사유 작업에만 머물렀다는 반성을 하게 되면서 불교수행을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다.

스리랑카와 티베트 출신 스님들로부터 불교 수행을 배운 그는 이후 오랜 시간동안 토론토의 한국사찰에서 사부(Samu)스님으로부터 한국선불교를 체험하게 된다.

이때 무불(無佛)이라는 법명을 수계 받은 헤이즈 교수는 "불법승이 조화된 불교

팔리·티베트어 자유롭게 해석 이론적 사유만 했다는 반성으로 사무스님 만나 수행, 법명은 無佛

미얀마 스님들 "무슬림 물러나라"

미얀마의 불교 승려 수백명이 9월 2일 무슬림 소수계 주민들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겠다는 대통령 방침을 적극 찬성하면서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었다.

지난 6월 미얀마 소수 종족 중 하나로 불교도들이 라키네 족과 무슬림계 소수파인 로힝야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 80명이 죽고 로힝야 수만명은 살던 곳에서 도망갔다.

이날 만달레이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승려들은 "대통령을 지지해 그대들의 모국인 미얀마를 구하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들고 있었다.

폐인 세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어떤 나라든 간에 로힝야들을 받아주는 나라가 있다면 이들을 모두 보내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를 즉각 반박했다. 미얀마 사람들은 로힝야들을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이주자들이라고 여



미얀마 스님들이 무슬림을 추방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 있으나 방글라데시 역시 이들을 자기나라 사람들이 아니라며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로힝야들은 국적이 없는 것이다.

약 80만의 로힝야들이 미얀마에 살고 있는 것으로 유엔은 추정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인도 동부지역서 굽타시대 불상 발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 동부해안 자이뿌르(Jajpur) 라릿지리(Lalitgiri) 불교유적지 주변에서 최근 9월 6일 배수로를 파던 중 불상이 출토됐다.

500~700년경인 굽타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은 90cm×65cm 크기로 한 손은 축복 내리는 손짓을, 다른 한 손은 연꽃을 들고 있다.

불상 뿐 아니라 라릿지리 근방 언덕 기슭에서는 수도원도 발견됐다. 30m×30m 규모의 크기로 4개 방이 있는 이 수도원은 왕의 후원으로 8세기경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 수집가인 아빌 쿠마르 사말은 "발굴 작업을 통해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곳을 보존·관리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우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수정기공 특강 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관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메탈,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풍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끼여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 을 치세요.